印 구자라트 주정부 "불교·힌두교 별개"

인도 헌법에 종교 자유 보장 강조
개종 대한 법적 절차준수는 필요
공식적 고지에 현지 불교계 환영
"불교는 힌두교 하위종교 아냐"

박영빈 객원기자


구자라트에서 열린 집단 개종식의 모습. 사진출처=인디안 프레스

인도 구자라트 주정부는 최근 "불교가 별도의 종교로 간주돼야 하며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하기 위해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한다"는 관보를 고시해 화제다.

현지 불교계에서는 불교를 힌두교의 분파로 간주하던 지역사회에서 불교계의 위상이 바로 서는 일이라고 환영했다. 이 놀라운 소식을 4월 11일 인도의 '더 인디안 프레스', '힌두스탄 타임즈'등 현지 주요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지난 4월 8일 인도 구자라트 주정부 내무부에서 고시한 관보 〈힌두교에서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로의 개종 허가에 관하여〉는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힌두교에서 불교로의 개종을 허가하고 있으나, 지역 치안판사들이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했다. 비자이 바데카 내무부 차관의 명의로 발표된 고시에서는 "2003년 구자라트주에서 제정된 '구자라트 종교자유법'과 의거하여 불교는 힌두교와 별도의 종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구자라트 주정부 관계자는 고시에 대해 "인도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개종에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사기, 협박, 금전 갈취 등에 의한 강제 개종의 위험에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구자라트 종교자유법은 헌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이나 일부 지역 치안판사들과 행정관들이 힌두교에서 불교로의 개종에 대해 법과 그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공식적인 고시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고시에서는 "종교개종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법률 조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답변을 하게 되면 사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 집행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현지 불교계는 고시에 대해 즉각 환영을 밝혔다. 현재 구자라트주에서는 불가촉천민인 달리트(Dalit)를 중심으로 불교로 개종하는 경향이 강하며 '구자라트 불교 아카데미(GBA)'가 정기적인 불교 개종식을 봉행하고 있다. 라메쉬 반케르 GBA 사무총장은 "이 고시는 불교가 힌두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별도의 종교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는 항상 불교는 힌두교의 일부가 아니며, 불교로 개종하려는 이들을 위해 규정된 법적형식을 따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 지역판사와 행정관들이 불교를 힌두교의 분파나 하위 종교로 이해하고 개종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오해가 지역사회에 만연했다"면서 "이번 고시는 그동안 주정부의 해명을 발표해달라는 불교계의 오랜 요구가 이행된 것"이라며 기쁜 마음을 내비쳤다.

GBA 측에 따르면 2023년에는 주로 달리트를 중심으로 구자라트 주에서만 최소 2000명이 불교로 개종했다. 2011년 인도에서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구자라트에는 3만483명의 불교도가 있으며, 이는 구자라트 전체 인구의 0.05%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자라트의 불교계는 인구 조사관들이 그들을 힌두교도로 기록하기 때문에 실제 불교도 수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中 '댐 건설'로 티베트 사원 무력 이전 논란

이주 작업 착수…문화재 보존 방안 등 무대책

중국 당국이 청해 티베트 자치주 하이난 지역에 위치한 19세기 티베트 불교사원 이주를 시작했다. 문화재 보존 방안 등에 대해서는 무대책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월 12일 라디오자유아시아(Radio Free Asia, 이하 RFA) 보도에 따르면 아촉곤 데첸 죄코링 사원은 지난해 중국 문화재청 명령에 따라 이주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당국은 이 사원이 위치한 자낭현(扎囊县) 드리추강 인근에 3D 프린팅 수력댐을 건설 중이다. 이 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건설 중이며, 댐의 첫 구간은 높이 약 150m에 이른다. 완공되면 지역의 수력 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주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이주를 명령했지만, 1898년 창건된 이 사원의 문화적 가치 보존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속스님들의 거주처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 사원에는 160여 명의 스님이 머물고 있다. 특히 사원 주변의 벽화와 부도탑 등은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파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사원스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주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처벌하겠다고 엄포한 상황이다.

RFA는 "사원 이주에 대한 반대 운동이 있었으나, 중국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이주를 추진했다"며 "자낭현에서는 드리추강에 대한 댐 건설에 대한 시위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스님과 주민들이 체포됐었고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정부의 민족 및 종교 말살 정책인 이른바 '중국화 정책'과 관련한 압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국제적십자위원회 '불교와 국제인도법'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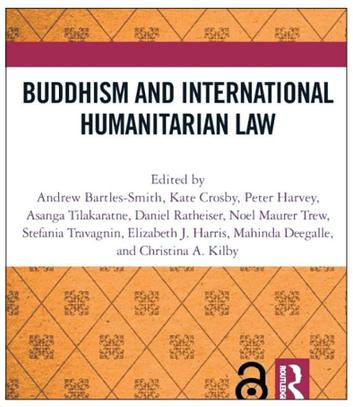
충돌서 불교 가치 실천 사례
국제적십자위원회 주도 발간

폭력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불교의 사례와 저술은 풍부하지만, 실제 무력 충돌 중 불교의 가치를 실천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방법을 조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 최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불교와 국제인도법〉을 출간하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주요 불교학자 및 실무자들의 공동 주도로 발간된 이 책은 국제인도법을 강조하고 강화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무력충돌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불교적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저술자 중 한 명인 위띳 분따르보른 태국 출라롱콘 대학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교가 완전히 반전적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것처럼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불교는 방어 또는 보호를 위해선 전쟁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의 종교로 알려진 불교에도 전쟁수행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불교에 뿌리를 둔 연민, 자비, 관용의 개념은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을 뒷받침함으로써 적대 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불교와 전쟁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돼 왔고, 진행 중인 전쟁에서의 불교 역할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에 출간된 〈불교와 국제인도법〉은 불교 윤리의 기본 원칙이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매우 유사하게 교전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해악과 자신에게 미치는 인과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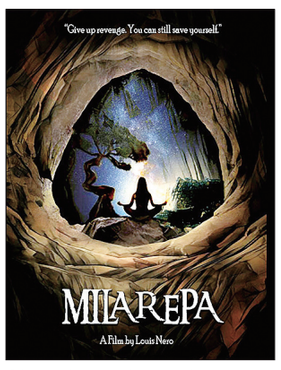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발간한 〈불교와 국제인도법〉. 사진출처=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국제문제부 소속이자 이 책의 공동 편집자인 다니엘 라세이저도 "불교와 국제인도법 모두 갈등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줄이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불교 윤리는 국제인도법의 규칙과 광범위하게 일치하며, 불교의 심리학적 자원은 국제인도법이 강조하는 인도주의 규범 준수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책에는 불교 윤리 원칙과 군사 훈련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군인들에게 제공돼야 하는 불교 가르침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불교를 종교로 가진 전투원들이 불교적 이상과 인도주의적 이상을 군사적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담겼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고승 이야기 영화로 만난다

밀라레파·마르파 로츠 일생 다룬
영화 '밀라레파' 최근 제작 마쳐



영화 '밀라레파' 포스터. 사진출처=버라이어티

티베트 불교의 고승 젯선 밀라레파(Jetsun Milarepa)와 마르파 로츠와(Marpa Lotsawa)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가 개봉된다.

미국의 연예 전문 잡지 버라이어티(Variety)에 따르면 11세기 티베트 불교 인물인 밀라레파와 마르파 로츠와의 삶을 다룬 영화가 제작을 마치고 곧 개봉될 예정이다.

'밀라레파(Milarepa)'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루이스 네로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획기적인 캐스팅으로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티베트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대신 '레 미제라블'에 출연한 배우 이자벨 알란이 밀라레파로, '아이리시맨'에 출연한 하비 카이텔이 마르파 로츠와로 각각 분했다.

밀라레파는 11세기 티베트의 고전주의 시인, 성인, 스님이자 티베트 불교에서 '대성인'을 의미하는 마호통(Mahasiddha)으로 티베트 불교의 가장 덕망 높은 스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원래는 흉악범이었으나 훗날 이를 참회하며 불교에 귀의했다. 또 마르파 로츠와는 '큰 완성자'를 뜻하는 마하살립(Mahasiddha)으로서 밀라레파의 주요 스승이자 선견자이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섬 사르데냐에서 대부분 촬영했다. 또 과학 판타지 장르 중 하나로, 과학 기술의 발전이나 혁신을 배제하고 기술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상력을 구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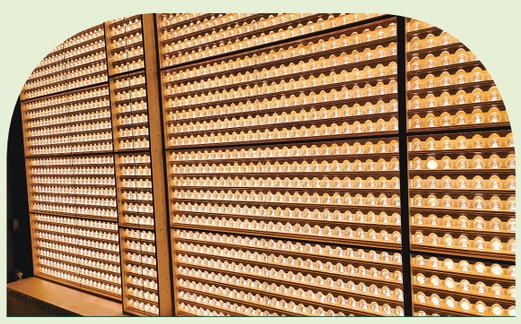

원불전


법당특별장엄등

장엄등 절찬 판매


만월등


도량장엄등


인 등


위 패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www.boryeon.com 시공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Instagram
NAVER 블로그 검색 : 보련기획